

토라는 끝인가?

“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” (롬 10:4, NIV)

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‘마침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 해석한다면 ‘TELOS’이 되고 영어론 ‘END’라고 되어있다. ‘TELOS’는 ‘마감/끝/종료’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, 수신 언어에서 그 용어의 유연성으로 인해 이 방법으로 렌더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. 영어로 ‘끝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영어로 된 단어의 대다수를 사용하는 ‘종료’이다. 그러나 영어 속담에는 “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(The end justifies the mean)”는 표현한다. 이 경우 덜 사용되는 의미는 헬라어와 영어 모두에 적용되는 ‘목적 / 목표’의 의미이다.

사도 바울은 “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”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, 돌아서서 토라를 “종결”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.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토라는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메시아로 데리고 오는 선생이라고 가르친다. 그런 후에 사람이 토라를 이해하고, 예슈아를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, 메시아께서는 토라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.

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비밀스러운 발언 중 하나인 것은 예슈아를 “말씀이 육신” 되었다고 가르친다. 그 반대로 NIV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을 원 뜻 반대로 통역을 한 것이다. NIV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우렁찬 목소리로 기차 정류장인 것처럼 소리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다. - “율법은 끝! 모두 내려라!”

또한, 일부 성경 구절에서, ‘TELOS’는 ‘목표/목적지’를 의미할 수 있다.

“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‘마지막’은 영생이라” (롬 6:22 NIV) (‘끝’으로 통역되어 있음)

아래믹: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‘목적지 (telos)’는 영생이라.

“이 교훈의 ‘목적’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” (딤후 1:5 NIV)

아라믹: “이 교훈의 ‘목적 (telos)’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”

“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” (벧전 1:9 NIV) (‘TELOS’ 단어가 빠졌음)

영어: For you are receiving the **goal** of your faith, the salvation of your souls.

아라믹: Obtaining as the **goal (telos)** of your faith the salvation for your souls.

아라믹 해석: 믿음의 **목표**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

아람어에서 이 같은 구절이 "목표"와 같은 독서를 'SAKA' 라는 단어와 함께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 'TELOS'는 컨텍스트의 의도된 의미를 실현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다.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토라를 계속 지지하기 때문에(롬 3:31), '목표/목적'은 나머지 가르침들과 매우 일치한 것이다.